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1)

위인이 새시대를 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복잡다단한 정치정세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며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은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온 겨레가 한강토우에서 행복을 누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져온 격동의 10년이었다.

대결의 동로대를 녹이는 불빛

이 땅은 대결과 분열로 얼어붙은 동로대였다.
그 력사의 동로대를 녹여 주시려 생애의 전기간 그토록 마음쓰시며 로고에 로고를 거듭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대결과 분열의 얼음장을 녹이는 조국통일의 기운들이 이 땅을 진감하여 지난 시기 겨레에게 실로 크나큰 기쁨이 안겨졌으며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 의지는 세계에 과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을 더는 미루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로 여기시고 지난 10년간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략들을 환히 밝혀 주시으로써 분열의 동로대에 파사로운 불빛을 뿌려 주시었다.
그 불빛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들에도 깃들여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기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는 자주적인 통일의지가 천명된 신년사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들의 구절구절에 넘쳐흐르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두철한 민족자주와 민족대결의 사상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 민족적위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올 때마다 평양하늘을 우러러보며 웃음을 머미고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고 그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정으로 경경해온 우리 겨레는 그때마다 흥분과 격정을 터치었고 온 한해 신심과 락관에 넘쳐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시어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106(2017)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뜻깊은 신년사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셋이 되는 해인 2017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특히 2018년 신년사를 통하여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큰 제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 《애상을 뛰어넘는 과격적인 조치》 등으로 격찬하면서 열렬히 지지환영해나섰다. 또 한 남조선의 정계와 각계 인사들속에서도 《신년사의 내용과 표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며서 감격 놀랐다》, 《상당히 과격적인 조치를 담고있다》, 《대단히 환영할만한 제안이고 그에 상응하는 립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오래동안 얻어보지 못한 북남관계 해빙의 물결이 났다》, 《남북관계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남북평화의 시기로 들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등의 글들이 차근차근다.
이뿐이 아니었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렘치치》는 2018년초순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대해 격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천명하신 그의 신년사가 발표되자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서술하였으며 미국잡지 《네이슌》도 북조선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고 전하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야말로 온 겨레를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으로 부른 력사적인 호소였고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근차근 애국애족의 결정체였으며 대결의 동로대를 녹여주는 불빛이었다.
종계 흘러가던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합의들을 어긋는 한해로 리행하지 않았음으로 하여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9월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하였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시었다. 그러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키시었다.

정녕 투철한 자주통일의지와 열렬한 민족애, 탁월한 지략과 넓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밝히시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헌신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전해지며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또 한분의 위인, 조국통일의 구성

주제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는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는 겨레의 마음은 뜨거웠다.
온 김일성광장이, 아니 온 삼천리가 삼시에 밝아졌다. 젊으신 출중한 령도자를 우러르는 겨레의 마음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었다.

그이는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갈수록 없는 우리의 태양.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던 바로 그날의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 확실하고 결실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심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 하시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굳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시던 그날의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통일은 그자체가 민족적단합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정녕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묶어세우실 투철한 통일애국의지와 바다와 같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원수님이시었다.

김일성광장에 제렝제렝 울려퍼지던 그날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겨레는 우리 인민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고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며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귀하신 영상을 머리에 떠올렸다.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험천만한 판문점에도 나오시고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도 마련해 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생각하였다.

민족의 어머니를 잃고 목놓아울던 우리 겨레에게 통일애국의 굳센 의지를 천명하시고 통일신심과 락관을 불러일으켜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면서 겨레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또 한분의 탁월한 위인,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중에서

조국소식

개건된 평안북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 진행

평안북도산림과학연구소가 개건된 산림과학연구소가 개건됨으로써 도안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9월에 진행된 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에는 김태성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 도산림관리국, 도산림과학연구소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연구소를 돌아보았다.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종합식료공장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공장에 각종 식료가공설, 종합 조종설, 과학기술보급설, 문화후생 시설 등이 그르흔하게 갖추어짐으로써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10여개의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훨씬 늘이였으며 종합조종설을 새로 꾸려 생산공정들에 대한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고 흐름선화하였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

오늘도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던 삼천리강토에 땅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고 있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로 하루아침에 국권을 외세에게 강탈당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비운에 떨었는가.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을사5조약》의 날조는 가장 포악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은 잔대미문의 국권강탈범죄였다.
조약은 일제의 강도적성과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을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초보적인 조약문서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법의 협정문서였다.
이 조약 아닌 《조약》과 그 후에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 서 자주권을 무참히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타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 《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끌고 가 비참한 죽음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치

시한 잔인한 침략자를 알지 못한다.
과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 지배는 미국의 적극적인 묵인비호에 감행되었다.
지난해 남조선의 《제외도포신문》이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일제의 죄행과 함께 이를 묵인비호해나선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폭로한 《뉴욕 타임스》 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를 묵인비호한 미국의 교활한 책동은 조선민족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침략과 지배, 이를 묵인비호한 미국의 교활한 책동은 미일의 침략적본성과 함께 외세에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뼈아프게 느끼게 해주었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 저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성근히 반성하고 청산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하는 고종황제의 립장을 외면한 미국은 오히려 《을사5조약》이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체결되었다고 하여 조선의 외교업무를 일본이 맡아하게 되었다는 일제의 주장을 비호두둔해나서면서 서울에 있던 미국공사관을 일본 도포로 옮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1882년 조선봉건정부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조약에는 어느 나라도 부당하게 조선문제에 간섭하는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이 조약을 리행

끝나지 않은 침략력사

떨리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족의 넘과 민족성까지 말살하기 위하여 귀중한 재보인 력사적물들을 수많은 빼앗아 불살라버렸으며 옛무덤들을 도굴하고 지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말과 글마저 없애려고 발악하였다.
홀러온 인류력사에는 외래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나라와 민족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강압과 사기협잡 등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조약을 날조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몹시러치는 식민지강점통치체

제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일제의 주권침탈에 항의하는 고종황제의 립장을 외면한 미국은 오히려 《을사5조약》이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체결되었다고 하여 조선의 외교업무를 일본이 맡아하게 되었다는 일제의 주장을 비호두둔해나서면서 서울에 있던 미국공사관을 일본 도포로 옮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1882년 조선봉건정부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조약에는 어느 나라도 부당하게 조선문제에 간섭하는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이 조약을 리행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성근히 반성하고 청산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하는 고종황제의 립장을 외면한 미국은 오히려 《을사5조약》이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체결되었다고 하여 조선의 외교업무를 일본이 맡아하게 되었다는 일제의 주장을 비호두둔해나서면서 서울에 있던 미국공사관을 일본 도포로 옮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1882년 조선봉건정부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조약에는 어느 나라도 부당하게 조선문제에 간섭하는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이 조약을 리행

본사기자

본사기자 주광일